불교문화 상품을 개발하자

불교는 372년 우리나라에 전래된 이래 하나의 종교를 넘어서 우리들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뿌리이자 전통문화다. 최근에는 서양인들도 부쩍 불교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불교에 관한 상품개발은 미비한 수준이다. 특히 최첨단 정보화 시대와 문화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 주변의 불교 상품을 보면 질적 · 양적 성장이 절실함을 느끼게 된다.

그럼, 우리의 불교 문화상품의 실제는 어떠한가. 현재 불교에 관련된 문화상품들을 살펴보면 조잡하기 그지없다. 어느 사찰에서나 구매할 수 있는 그렇고 그런 물건이 고작이다. 그 중에서도 천편일률적인 캐릭터나 그 지역과는 전혀 무관한 값싼 상품들, 심지어는 중국 등지에서 수입된 허름한 상품들은 가뜩이나 특징 없는 불교상품의 이미지를 더욱 더 떨어뜨리고 있다. 타 종교에서 지역특성과 정서를 감안한 다양한 문화 상품을 쏟아내는 것과 비교해보면 그 개발의 시급성을 새삼 느끼게 된다. 불교자체를 상품으로 본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방법적으로 개발을 해야 한다.

현대인 눈높이 못맞춘 상품 판쳐
온·오프라인 '감각' 살려 접근해야

우선 다양한 불교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여러 사이트에서 나름대로 상품개발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영세성 및 기타 여러 이유에 의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한 예로, 대다수의 불교 상품들은 현대인의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한 디자인이나 품목으로 개발돼 있다.

전국 사찰 소재지의 땅, 공기, 보유문화재, 관습, 의식주 모두 생각만 조금 바꾸면 훌륭한 불교 상품으로 무궁무진 개발이 가능하다. 다양한 상품개발은 불교문화 정진의 첫 걸음이 된다.

다음으로 디지털 솔루션을 구축해야 하겠다. 인터넷 방송의 외국어 버전이나 사이버 체험, 불교문화 유적탐방, 테마여행, 홈페이지 사이트 운영, 사이버 납골당사업 등 온 · 오프라인을 통한 불교관련 디지털 솔루션 개발에 관계된 많은 일들이 산재해 있다. 디지털 아카이빙(데이터를 이전 · 관리하는 방식) 장치를 통해 불교에 관련된 모든 콘텐츠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온라인상에서 자유롭게 설법도 듣고, 전국의 주요 사찰도 방문할 수 있다면 참으로 매력적인 일이 될 것이다. 디지털 솔루션의 구축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큰 사업이다. 하지만 단기간 내에 수익성을 보장 받을 수 있는 CI 작업을 통한 캐릭터 산업이나 영상을 통한 DVD 제작 등을 시작으로 각 사찰의 이미지를 새롭게 상품화한다면, 앞으로 각 사찰이나 불교계 경제의 새로운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경전 설화의 현대적 해설과 영상물 제작과 같이 장기적으로 다양한 투자를 한다면 유 무형의 부가가치는 엄청날 것이다.

불교인이 새로운 마인드로 앞을 향해 적극적인 노력을 할 때 건강하고 젊은 불교, 우리와 친근한 생활 속 불교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 이점원(동국대학교 미술학과 교수)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채수삼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잘 샀나? 동국대 필동 中大 병원 건물 못 샀나?

매입절차·가격·계약금 지불액 등 의문 증폭

동국대가 오는 12월 최종 인수하게 될 필동 중앙대병원 건물은 지상 11층인 구관과 4층 신관으로 부지면적만 1700여평에 달한다. 사진=조용수 기자

최근 동국대가 총 274억원을 주기로 하고 매입한 필동 중앙대부속병원의 계약과정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공간 부족으로 고통을 겪던 동국대가 연건평 4800여 평의 교육공간을 새로 확보한다는 사실에 모두 환영하고 반겼던 처음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의혹은 ▲과연 이사회 승인이 나기도 전에 전격적으로 매입을 결정해야 할 만큼 급박한 사안이었나? ▲매매가 274억원은 적절한가? ▲계약금을 왜 130억 원씩이나 지급했나 하는 것 등에 모아지고 있다.

이사회 승인없이 매입

매입사실이 처음 알려진 것은 현해 스님이 이사장으로 선임되던 1월 27일. 홍기삼 총장은 이날 이사회 보고안건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처음 외부에 공개 했다. 그러나 전 이사장 정대 스님 열반 후 재단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던 시점에서 3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이사회 승인 없이 무리하게 추진한 것에 대해 분명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재단 관계자는 "부동산 매입의 경우 이전에도 선 시행 후 승인을 관행적으로 용인해 왔고 1월 26일 이사회 보고에서 대부분의 이사가 반대하지 않아 사실상 양해가 된 것으로 봤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식으로 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명백히 잘못"이라고 시인했다.

더 싸게 살 수 없었나?

지난 3월 2일자 '중대신문'은 톱기사로 필동 병원이 오는 12월까지 건물에 대한 명의 변경이 불가능하고 고도제한으로 개발이익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매입자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 등을 상세히 보도했다. 더구나 이 대학 이상윤 법인사무처장의 말을 빌어 '시중가보다 30~40억원 더 받아 만족스러워 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필동 부근 부동사 업자들은 "지난해 10월 이후로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인근의 거래가 끊겼기 때문에 274억원 이하로도 얼마든지 매매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초 매입타당성을 조사했던 총무처 관계자는 "서울 4대문 안에 있는 역세권 빌딩을 평당 1600만원대 구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다"며 고가매입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중앙대 측이 당시 법인 사무처장이던 성국 스님에게 제시한 최초 매도가가 270억원이었다는 점에서 274억원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계약금 130억원 타당한가

일부에서는 계약금이 130억원이나 지급된 것에 대해서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통상적인 상거래에서 계약금에 대한 관행이 총액의 10%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도 "이런 예외적인 경우는 거래 당사자간의 옵션계약이 있지 않고서는 드문 경우"라고 말할 정도다.

동국대 측은 이에 대해 "중앙대가 현재 추진 중인 메디컬 센터건립자금이 급박하다고 사정을 해와 우리가 양해 해준 것일 뿐"이라며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하지만 불교계 안팎에서는 어떻게 이런 불합리한 계약이 성사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조용수 기자

총지종 9대 종령에 효강 종사 추대

총지종(통리원장 우승)은 5월 17일 서울 통리원에서 승단총회를 열고 제9대 종령으로 효강(曉岡 · 사진) 종사를 추대했다.

1927년 경남 밀양에서 태어난 효강 종사는 85년 총지종 승직으로 입문한 이래 종의회 의원, 중앙교육원 원장, 법장원장, 통리원장,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이사장 등 요직을 거치면서 종단의 기틀을 다지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

효강 종사는 "모든 승직자가 분별심을 버리고 계행과 수행을 철저히 하는 종풍을 널리 선양하는 한편, 대중공의를 존중해 화합승단을 이뤄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종단협·조불련 공동발원문 채택

남북 사찰 봉축법요식서 낭독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이하 종단협)와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이하 조불련)이 불기 2548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공동발원문을 채택했다.

종단협은 조불련과 남북의 모든 사찰에서 열리는 봉축 법요식에서 공동발원문을 봉독하기로 합의했다고 5월 20일 밝혔다.

종단협과 조불련은 공동발원문을 통해 "부처님의 화합정신을 받들어 우리 민족의 결집된 역량과 공조로 통일을 이루어나가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발원한다.

또 "용천지역이 정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민족 대중의 협력과 합심, 동체대비의 실천행이 더욱 요구된다"며 "그들이 하루 빨리 고통과 시련을 털고 일어나도록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박봉영 기자

조계종 제2차 포교종책 연찬회 주요내용

교구본사 역량·의지·시스템이 중요
신도시 포교·신도조직 체계화해야
포교분담금제·실무자교육도 필요

포교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구본사의 포교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계종 포교원 연구실이 5월 18일 불교역사기념관에서 개최한 '제2회 포교종책연찬회'에서 김한일 총무주임은 '교구 포교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교구본사의 포교역량과 의지, 포교행정 시스템 유무는 종단의 포교 역량 평가에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주임은 "현재 각 교구본사들의 포교예산 비율은 전체 사찰예산의 6.69% 밖에 되지 않으며, 본사에 포교국장 외 포교담당 종무원을 두고 있거나 종법상 반드시 둬야 하는 상임포교사를 갖추고 있는 사찰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대부분의 교구본사들이 제대로 포교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포교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해야 할 본사 포교국장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고 자주 교체되고 있으며, 심지어 공석인 곳도 많다"고 지적하고 "교구의 포교역량을 강화하고 종단과 교구본 · 말사, 각종 포교신도단체를 잇는 포교행정망을 구축해 일괄적이고 체계적인 포교종책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앙승가대 김응철 교수와 각종 산하단체 실무자들은 "교구본사뿐만 아니라 개별 단위사찰과 신도단체들의 포교역량 강화도 시급하다"며 "일산과 안산 신도시 등 새로운 지역에 대한 종단의 포교방안과 이에 따른 지원이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포교사단 양성홍 단장은 "신도인력의 조직체계화 작업도 선행돼야 한다"며 "포교분담금제를 통해 포교원은 교구본말사와 신행단체들을 지원하고, 중앙집권화 차원의 포교 실무자교육 등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10년의 포교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한 포교연찬회는 6월 1일 '포교원 산하기관 진단(포교원 단체기관 담당 최영)'과 '신도회 · 신도단체 진단(중앙신도회 이상근 부장)'이라는 주제로 세 번째 자리를 갖는다.

김은경 기자

불기 2548년 5월은 부처님 오신 달

사단법인 대한불교 원융종

종 정 영산 일공 사서실장 평신
부종정 유념 법신

원로원장 송산
원로위원 선명

승정원장 성견

총무원장 법륜
총무부원장 선진
총 무 부 장 진호
사 회 부 장 체법
사 회 국 장 홍재
사 업 부 장 체도
사 업 국 장 성해
일본국제포교부장 체상
미국국제포교부장 법성

문 화 원 장 체관
포 교 원 장 벽봉
규 정 원 장 정관
교 육 원 장 화담
중앙비구니회장 대월
중앙비구니부회장 선덕

중앙종의회의장 체의
중앙종의회부의장 천호 지관
중앙종의회의원 체혜 체선 체명 체각 보선 성욱 풍원 송운 성수 원심

◎ 전국교구 종무원
전라종무원장 진운
충청종무원장 체두
경남종무원장 은혜
경북종무원장 불선
부산종무원장 대천
인천종무원장 법원
대구종무원장 송월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2동 704-23호 TEL 02) 853-0531 FAX 02) 853-0533